

## 書 評

朴鼎在, 韓國經濟 100年 <韓國經濟의 近代化過程>, 서울 韓國  
生産性本部 1971, 四六倍版, pp. x+684 價格 7,000원

이 책은 全文 684頁 4編으로 構成되어 있다. 1編은 韓國經濟의 近代化過程序說, 2編은 經濟社會의 變遷—近代化的 展開過程, 3編은 社會經濟政策의 推移, 그리고 4編은 經濟統計의 發達過程, 附錄으로서는 經濟年表, 經濟指標 및 主要商品價格推移로 이루어져 있다.

著者が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近代韓國經濟가 순조롭지 못한 여러 變遷을 거듭하는 가운데 각 時代에 따르는 많은 資料들이 흩어져 있거나 또는 없어져 가고 있고 또 統計數値의 경우도 그 系列에 있어 一貫性を 잃고 있는 점 事實이다. 또 그 變遷過程에 있어 각 時代마다 다른 體制下에 있었기 때문에 經濟用語의 쓰임도 一貫性を 자연 잃게 된 점 事實이다. 그러므로 일반이 韓國經濟의 近世를 파악하는 데 많은 難點이 있을 뿐더러 그 變遷過程을 特徵지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이 책을 著述함에 있어 著者が 試圖하는 바는 近世韓國經濟에 관한 많은 資料들을 綜合整理하여 韓國經濟 100年을 一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동안의 變遷過程을 特徵지우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試圖下에 第一編을 6個章으로 나누어 韓國經濟의 흐름을 歷史的으로 그리고 理論的으로 比較論述하고 있다. 즉 中世 이후 東洋 及至는 韓國의 生活史를 西洋의 그것과 比較하면서 韓國의 經濟的 發展에 대한 動因을 찾아 보고 그리고 李朝末期에 産業革命의 세례를 받아 成熟해진 西洋 여러 나라들이 東洋諸國 더욱이 韓國을 中心으로 展開된 市場擴大過程을 分析하고 있다. 이러한 過程 속에서 韓國 內에서는 實學思潮를 바탕으로 또는 歷史的 歸結에 따라 內政改革을 단행 內實을 추구해 보았지만 蓄積된 外國資本의 移植이 불가피해졌다는 經緯를 밝혀주고 끝으로는 日帝下에서 비록 自主的 發展을 이룩하지는 못했지만 解放 이후 꾸준히 體制 및 制度의 改善으로 成長의 基盤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現代에 있어 여러 計劃이나 制度面을 土臺로 韓國經濟의 未來像을 概括的으로 分析論述하고 있다.

第二編은 8個章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一編에서 概括的으로 分析論述한 近代化過程을 보다 상세히 部門別로 나누어 分析하고 있다. 즉 각 經濟制度 社會制度의 變遷過程, 經濟規模의 擴大過程, 經濟計劃의 實績 그리고 市場需給의 安定化樣相 나가서는 國民生活樣式 및 그의 水準向上과 對外經濟規模의 擴大過程을 分析함으로써 이와 같은 推移가 바로 近代化라는 점을 認識시키려 하고 있다. 第二編은 바로 이책의 中心部分을 이루고 있으며 이 部分만으로도 韓國經濟의 擴大 및 成長 발자취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第三編에서는 第二編에서 論述한 制度의 變遷 및 經濟規模의 擴大를 가져오도록 한 政府의 成長政策指導理念과 施行政策을 部門別로 나누어 分析하고 있다. 즉 政策의 基本理念設定의 基準을 分析論述하고 政策面에 대해서는 財政金融政策 外換貿易政策 그리고 産業政策 및 社會政策으로 나누어 分析하고 있는 바 여기에 分析對象이 된 社會政策은 주로 産業化에 따라 必然的으로 提起되는 人口 住宅 및 公害問題에 대한 對策을 分析論述하고 있다.

第四編을 6章으로 나누어 經濟統計에 관하여 論述하고 있는 바 먼저 일반적인 統計의 役割과 그 改善推移등 韓國의 統計制度 흐름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經濟統計를 네가지로 區分說明하고 있다. 즉 첫째로 統計 調査를 통하여 얻는 一義統計 둘째 業務過程에서 集計整理한 二義統計 셋째로 經濟變動을 測定하는 經濟指數 넷째는 國民經濟를 綜合的으로 評價할 수 있게 하는 한편 國民經濟의 期間業績을 나타내는 國民計定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附錄은 첫째가 經濟年表로서 1865년부터 1971년까지 約 100年間 重要한 經濟日誌를 發生순서에 따라 게재하고 있는 바 年號는 西紀 王室年號 및 우리와 密接한 經濟關係를 가졌던 日本年號를 併記하여 對照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번째는 韓國經濟의 擴大樣相을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도록 각종 時系列表를 整理掲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中央銀行이 設立되어 調査하기 시작한 1910년부터 1971년까지 36種에 달하는 重要商品價格의 時系列을 收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에 대한 줄거리를 記述함에 있어 著者の 眞意를 얼마나 接近시키고 있는냐 하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바다. 그러나 이책을 一觀함에 있어 우선 著者가 調査分析業務에 오래 종사했다고는 하더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超人的인 著述이라는 점에서 높히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構成內容에 대해서 一筆을 加한다면 著者가 이책을 著述함에 있어 意圖하는 바는 잃어져가는 資料들을 總整理하여 韓國經濟의 100年을 概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의 基本目的은 韓國經濟의 近代化의 展開過程을 說得시켜 보려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편 韓國經濟近世에 대한 資料인 동시에 近代化展開過程에 관한 體系書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앞에서 들은 바와 같이 각 經濟制度, 社會制度 및 政策의 흐름에 관하여 또는 어떠한 經濟的 事件에 관하여도 수 많은 책을 뒤지지 않고서도 이 책 한 卷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풍부한 資料들이 收錄되어 있을 뿐더러 制度나 政策 또는 經濟的 事件들에 관한 效果를 論述함에 있어 必然的으로 提起되는 그들의 有効性을 유감없이 分析하고 있다. 또 默過할 수 없는 다른 業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바 그것은 經濟統計發達過程이라는 題下에 論述한 第三編 部分이다. 여기에 收錄된 經濟統計에 관한 解說, 作成要領 및 그의 時系列整理는 經濟統計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寄與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日常 接하고 있는 統計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充分한 理解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統計利用者가 그 하나 하나에 대한 作成經過나 그 要領을 찾아보려는 것 또한 번잡하기 이룰데 없다. 이런 점에서 統計知識이나 經濟統計에 관한 理解를 넓히는 데도 크게 貢獻할 수 있으리라 確信한다.

이 책에 대한 讀者로서의 느낌은 이 책이 現代의 經濟學徒나 韓國經濟를 理解하려는 國內外 知識人 또는 後世의 그들에게 까지도 우리의 近世生活史를 이해시키는 데 크게 寄與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著者에 대하여 깊은 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讀後感으로서 한가지 아쉬워하는 바는 그 著述 속에 著者로서의 뚜렷한 主張과 獨創性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며 나아가서는 副題에 따르는 近代化展開過程을 지극히 形式面에서 찾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制度의 西歐化, 多樣한 政策施行 및 經濟規模의 擴大등을 바로 近代化過程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尹 起 重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應用統計學科 副教授